

This is BASIC

This is basic original board

2019년 10월과 비교해 지난해 10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전제로 취업 가능한 특정활동 비자(E7)로 국내 체류하는 일본인은 37.7% 늘었다. 이 기간 단기취업 비자(C4)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384%, 구직 비자(D10) 체류 일본인은 484% 증가했다. 이전까지 일본으로의 '인력 수출'이 보편적이었다면 최근엔 일본으로부터 '인력 수입'이 시작됐다는 풀이가 나온다.

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건 워킹홀리데이(H1 비자)다. 1년간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 활동을 모두 할 수 있어 워홀 비자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다. 외국인 비자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무소 관계자는 "일본인 H1 비자 문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"라며 "워홀 비자 문의는 대부분 일본인"이라고 말했다. 실제 지난 10월 워홀 비자 체류 외국인 3826명 중 일본인(1447명) 비중이 37.8%에 달한다. 10년 전(617명)보다 워홀 일본인이 135% 증가하면서다



